

중국, 한국산 클로로포름 반덤핑 조사

상무부, 2004년 판정이어 2번째 ... 삼성정밀화학 수출에 큰 지장 없어

중국 상무부가 한국산을 비롯 유럽연합(EU), 미국산 클로로포름(Chloroform)에 대해 1년간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.

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, 중국은 자국기업의 제소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, 인디아산 클로로포름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.

중국은 2004년 11월30일에도 한국과 미국, EU, 인디아산 클로로포름에 대해 5년간 32-96%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,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2004년 조치는 유효하다.

클로로포름은 냉각제와 추진제 등으로 사용되는 일종의 촉매제로 국내에서 독점 생산하는 삼성정밀화학은 크게 문제 될 것 없다는 반응이다.

삼성정밀화학 관계자는 “중국은 2008년 9월부터 협정가격인 톤당 427달러보다 낮게 수출하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”이라며 “삼성정밀화학은 427달러 이하로 판매한 전적이나 계획이 없다”고 말했다.

또 “수출하는 클로로포름 중 중국 내수용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가공무역용이어서 협정가격이 적용되지 않는다”고 덧붙였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11/30>